

GRACE 선교소식

2026년 8월 GMI-GKC 선교사 현황: 58개국 301명 (자체파송 79%)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에는 9월 13일 우리 은혜교회에서 열리는 **다민족 기도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지도자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같은 시간 총회 임원모임을 통해 총회장으로서 여러 안건들을 함께 의논하고 처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Asian American Research Institute** 연구소가 개원되어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소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역들이 개발되고, 귀한 연구 결과들이 선교 현장과 교회 및 여러 기관들과 공유되어 더욱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합니다.

화요일에는 **목자 부흥의 밤**을 통하여 사랑하는 그룹장들과 가정교회 목사, 부목자들과 함께

금년도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에 있습니다. 이 원리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일에는 성도님들을 심방하며 사업장과 한우들을 찾아가 말씀을 나누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요일에는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회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 21일 영적 대각성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를 갖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약 1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사명감을 가지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며 섬겨 왔습니다. 금년이 벌써 5차 세미나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차세대 목회자들이 발굴되고 건강하게 세워져 주님의 교회를 힘 있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GTD 213기(남자)가 주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며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GTD 213(남)기 인도: 8/23-8/26
- 다민족기도성회 준비 연합기도회
말씀 인도: 8/27
- 몽골 TD #2기 인도: 9/1-9/4
- 오메가 교회, 오메가 부흥축제: 9/6-9/8
- 9/13(주일) 다민족 기도성회: 9/13
- 선교학교 강의: 9/14
- 국제 총회, 장소: 독일: 9/22-9/25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을수록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지지치 않고, 성령님과 동역할 때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국

남OO 선교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많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며 순수한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과 창조물들이 하나님과 행복했을 그때를요. 이곳도 비가 적게 내려서 곡물 생산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전기도 없이 지내며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일부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예배 모임과 어른들이 개종하는 것도 불법으로 여기는데 어린이 전도는 불법을 넘어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 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숨겨둔 주님의 군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부흥의 소식이 들리고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6월 초에 신청했던 비자연장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줄이며 기다렸습니다.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회사 사장님과 현지인의 도움은 '은혜의 낭만이 넘치는 주님의 손길' 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7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BPU의 모든 멤버들이 영육간의 강건하며,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총재: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446-6200 gkcgmiusa@gmail.com

아르메니아

백승환 / 올가 선교사

여름캠프

여름이 시작되면 저는 캠프에 모든 것을 걸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제 개인간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서울 영락교회 초등부에 출석하면서 여름이면 우이동 영락기도원에서 열리는 여름캠프에 매년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캠프 프로그램중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을 함께 부르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저는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속 깊이 느꼈던 것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이 되면 가급적 많은 여름캠프를 진행하면서 캠프를 통해 아이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형상이 세겨 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부터 시작된 캠프는 현재 8월까지 6번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러브캠프 14기 (6/8-6/12):** 장애아동과 가족들 140명을 초청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나누는 캠프였습니다. 매년 2번씩 열리는 러브캠프는 소외되고 돌보는 사람들이 없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예수의 참된 소망을 심어주고 육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캠프입니다.

• **아르타샷 데이 캠프(6/22-6/26):** 아르타샷은 아라랏 미션센터의 본부가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매년 약 250여명의 아동, 틴에이저들을 세반호수로 초청해 한주일간 진행되는 캠프를 해왔는데, 올해는 캠프를 데이 캠프로 바꾸고 교회 근처의 공원에서 캠프를 진행했는데 4일간 약 1천여명의 아이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로 5년째 계속 아르메니아 방문해



VBS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고 있는 미국 뉴저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체플(GCC)에서 18명의 단기 선교팀이 10일간 아르메니아를 방문하면서 귀한 사역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 **아가락 데이 캠프 (7/6-7/9):** 아가락은 이란과 아르메니아 국경의 작은 시골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약 7년 전에 이란 선교의 교두보로 아가락 미션센터를 세웠는데, 올해도 로컬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4일간 여름캠프를 은혜롭고 재미있게 잘 진행했습니다.

• **바이크 데이 캠프 (7/20-7/24):** 바이크는 예레반에서 2시간 30분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세 & 모니카 목사부부가 세운 굿뉴스 교회가 있는데 올해도 이곳 교회에서 약 1백여명의 아이들을 불러서 데이 캠프와 노방 전도 등 여름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 **시시안 데이 캠프 (8/7-8/10):** 시시안은 예레반에서 3시간 떨어진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에 위치한 국경 군사도시입니다. 이곳에서도 계속 여름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20여명의 캠프 봉사자들이 방문해 여름캠프와 노방전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 **동터키 무쉬 캠프(8/12-8/15):** 지난해 터키에서는 처음으로 아동들을 위한 여름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아르메니아 파송 선교사 부부인 삼손, 베네라 부부와 마가란 가족 등 모두 10여명이 캠프를 진행했으며 무슬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크리스찬 여름캠프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의 집 프로젝트

(Building Hope Project)

주거환경이 극도로 나쁜 가난한 가족에게 집을 지어주는 소망의 집 프로젝트는 3년 전에 시작돼 지금까지 3채의 집을 지어 불우가족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GCC 단기 선교팀이 직접 공사에 참여해 빠른 속도로 건물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3가족의 집을 벽세우기, 내부공사, 실내장식 등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8월말까지는 3가정의 집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난민 사역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현재의 이란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란 영혼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선 아르메니아로 넘어오는 난민들의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속적으로 많은 이란인들을 우리 인터네셔널 교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라랏 미션센터에는 10만권이상의 페르시아 바이블이 비축되었고, 이란의 정권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레반 시내에서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방전도를 매주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7

예레미야서의 예언성취

예레미야서 49장35-39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 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의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 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이 예언은 이란의 영적회복, 즉 이슬람 집권아래 47년간 눌러있던 이란이 이번 전쟁과 정권교환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슬람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님께서는 아르메니아로 144,000권의 페르시아 성경책을 이미 지난 2년 전에 보내주셨고, 또한 이란 국경에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탄자니아

조정석 / 남에스더 선교사

탄자니아는 지금 일 년 중 가장 쾌적한 건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50년 경제 대국'을 향한 야심 찬 비전 아래 연 6%대의 견고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커지며 시위 예고가 잇따르고 있어 다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상황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믿으며, 평안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쁨의 집 사역 이야기

• **바라카 프레드릭의 자립:** 3살 때 처음 만난 바라카 프레드릭은 부모의 부재로 영양실조에



걸려 걷지도 못해 걱정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실업률이 높은 이곳에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올 4월 동사무소 공무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 **늘어난 가족:** 5월에는 큰딸 테레시아가 예쁜 둘째 딸을 출산하여 '기쁨의 집' 가족이 늘어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 **막내 권의 진학:** 중학교 국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2등급)을 거둔 막내 권이 7월, 루소프 지역의 기숙사 공립 여자 고등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 **훈련하는 에릭과 자카리아:** 에릭과 자카리아 역시 7월부터 도도마 와엠베이스에서 진행하는 5개월 과정의 DTS(예수제자 훈련학교) 훈련을 받으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건강하게 찾아가는 아이들을 보며 참 대견하고 감사합니다.

교회 이야기 (보수교회와 음지음피아교회)

• **보수교회:** 5/24일에 어린이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찬양과 말씀, 드라마를 통해 큰 은혜가 있었으며, 날마



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 **음지음피아교회:** 새신자들이 꾸준히 늘어 이제는 3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7월 12일, 7명의 성도님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무슬림 청년이 개종하여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연합과 사역의 비전

6월 말에는 케냐에서 열린 목회자 인카운터에 참석하여 동역의 기쁨을 누리고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동역자 분들과 함께 탄자니아의 사역지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탄자니아 땅에서 나아갈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함께 그리는 뜻깊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멕시코

임한곤 / 이길선 선교사

선교 동역자님들의 쉬지 않으시는 기도와 마음을 담으신 선교헌금으로 땅끝 이방의 생명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동역자님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 소식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재삼 기도합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 모두가 사경 중에 있을 때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으며, 옥중에 구금상태로 몸은 묶여 있었음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대한민국에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하여 주었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지진(2026년 6월 24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멕시코 교회들이 형제애를 가지고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까미노노회 소속 파르00교회와 산타00교회 등이 1차 목표를 달성하여 현지로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재임시기요, 초대교회 시절에 심한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해 안디옥교회가 모금했음을 기억케 함과 동시에 멕시코교회 노회가 눈을 들어서 이웃 나라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신앙단체에 올라갔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멕시코의 마야문명 아래에 있는 63개의 언어 중 한곳의 언어를 구사하는 한 신학생(마야어와 스페인어 구사)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곳으로 파송되어 가고자 선교지로 정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의 사모(스페인어만 구사 중)의 마야언어 습득과 치안 안전, 후원교회가 정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M(국제선교회)선교회 소속 싱글 선교사인 까롤리나양이 아프리카와 인도 등을 순회하고 3년 만에 돌아와서 갯세마네 교회에서 선교보고를 했습니다. 개신교연합회내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둘로스호를 타고 망망대해를 향해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는 간증과 선교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명령하는 것입니다(고전15:3인용)" 하는 말씀이 모든 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멕시코에 뿌린 복음의 능력이 전세계의 교통의 허브인 멕시코를 통해서 5대양 6대주로 퍼져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쁨과 소망가운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안진호 / 안지연 선교사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도 언제 단기 선교팀을 맞이할까’라는 기대감과 기도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교육부 VBS팀이 온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쁘고 기다렸는지 잠이 잘 안왔습니다.

교육부 VBS 선교팀은 현지 아이들을 섬기지만 저희 부부는 선교팀이 사역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숙소 및 음식 등을 준비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공항에 갔을 때 첫 만남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며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EDU팀들은 어린 친구가 18살부터 21살까지 왔습니다. 팀 멤버 중에 꼬맹이 때부터 보았던 아이들이 커서 캄보디아 선교지에 온 아이들을 보니 선물을 받은 마음이었습니니다.

EDU 팀들이 교회에 도착하여 예배를 먼저 드리고 VBS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날부터 선교팀을 처음 맞아보는 아이들이 기대반 궁금반으로 가득찬 눈으로 바라보았고, 둘째날부터는 아이들이 120명 이상 모여서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안지연 선교사와 판나 사모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아주머니들이 점심과 저녁을 책임지시느라 땀이 뚝뚝 떨어지는 날씨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넷째날에는 모든 아이들과 팀들이 같은 티셔츠를 입고 마을 청소를 하였습니다. 약 100명 이상의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아이들이 마을의 쓰레기를 줍고 다니니 동네 어른들도 무슨 일인지 하고 보다가 흐뭇해하시며 고마워하였고, 몸이 아픈 가정을 방문해 복음 제시와 함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사역하는 내내 구름기둥으로 캄보디아의 해를 가려주셨습니다.

다섯째날 주일 예배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년이상 열심히 교회에 나온 13세이상의 아이들 중에 세례 문답 교육과 질의 문답과정을 이수한 아이들 15명과 유아세례 한 명, 이렇게 총 16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루 하루가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저녁 헤어질 때마다 다음 날을 기대하고 아침에 팀들이 도착하면 큰 길에 나와서 맞이했습니다(참고로 저희 교회는 길이 좁아서 대형 버스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팀들과 헤어질 때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고,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해 주는 감사한 사역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언니, 오빠들이 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한명, 한명 자신이 달라진 모습을 느끼고 다짐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에 저희도 놀라며, 앞으로 도의 꿈을 같이 꾸어 나아갈 것을 기도합니다.

이번 VBS팀의 총 일정은 9일이었습니다. 저희 뽀렉끄러빠오 중앙 은혜교회에서 5일, 그리고 학교 사역을 하시는 GMI 선교사님 학교에서 3일, 이렇게 8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날에는 캄보디아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총아엑킬링필드 학살 현장과 Central Market, Mekong River Tour 등의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태풍으로 대만에서의 비행기 연결편이 모두 취소되어서 비행기 일정을 바꾸는 대 혼란

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행하심으로 모두 무사히 이틀에 나누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VBS 단기선교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한기홍 목사님이 언제나 말씀하셨던 “연합하여 영성을 이룬다는 말씀(롬8:28)”처럼 GMI선교사들이 협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셨고 둘째는 VBS를 통해 현지 아이들 중 리더들을 양성하여 어떤 혜택도 못 받는 캄보디아 시골교회에 저희들 자체 VBS팀을 만들어 전도하라는 말씀을 받고 앞으로 오는 VBS팀을 통해 뽀렉끄러빠오 중앙 은혜교회 현지 리더 훈련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뽀렉끄러빠오 중앙 은혜교회에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와 함께 다른 사명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지 모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도해주시는 분들과 저희들의 비전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과테말라 그레이스 인카운터 4기

손영은

3년 전, 과테말라 인카운터에 처음 저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왜 제가 과테말라에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순종하며 선교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음성으로 제가 이 교회에 부름받은 이유와 과테말라에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선교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고, 그 이후로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선교지에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세 번째 과테말라 선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에서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두 번째 선교에서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제 마음에는 한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선교를 가도 될까? 기도도 금식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모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 확신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과테말라를 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과테말라에서 저는 새로운 인카운터를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동역자들과의 만남

이번 선교에서 저는 리프레시먼트 팀장을 맡게 되었고, 저를 도와줄 우리 교회의 조이스 자매와 현지 교회 성도 두 분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조이스 자매는 이번 선교를 계기로 처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친구였습니다. 모든 일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함께했고,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였지만 과일을 하나를 준비하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현지 교회의 두 분 역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손길로 함께 섬겨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꼬라손(Corazón), 마음(Heart)을



담아 준비합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분들은 제 말을 이해한 듯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선교 마지막에는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언어는 달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만큼은 하나였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국적과 언어를 넘어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의 만남

이번 선교에서 또 하나 큰 은혜는 믿음의 선배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사랑으로 저를 품어 주셨고, 함께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캔디데이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고, 어떤 분에게는 리프레시먼트를 준비하는 세심한 섬김을 배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는 모습을, 또 다른 분에게는 선교를 준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의 선교 가운데 이번 선교가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은혜교회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인지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인카운터 중 한 자매님의 간증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자매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기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넘치는 자유와 사랑을 부여주시기 위해**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며 저 역시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과테말라까지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로 부르셨고, 제게 넘치는 사랑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뛰고, 웃고, 배우고, 사역하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과테말라 인카운터가 마지막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만난 캔디데이트와 함께 섬기었던 현지 사역자들, 노방전도에서 만남 영혼들을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 이 땅에서 함께했던 인카운터를 주님 앞에서 다시 나누게 될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은 설렘과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를 새롭게 하셨고, 좋은 동역자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셨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글로리아 아 디오스! (Gloria a Dios, 하나님께 영광!)

케냐 단기선교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다.

킬리피에서 만난 300명의 아이들

첫 사흘 동안 우리는 킬리피에 있는 한 학교에서 약 300명의 어린이를 섬겼습니다.

첫날 아침, 아이들을 처음 보는 순간 제 마음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알기도 전이었지만, 놀랍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첫날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택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0명의 어린이가 함께 만들어 내는 소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첫날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사역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습관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온 선교팀이 함께 모여 하루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녁에도 다시 모여 다음 날의 사역과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온몸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아침 기도와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게 느껴져도 제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눈에 어려움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 눈을 열어 좋은 것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제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예수님과 제 주변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둘째 날 사역이 끝날 무렵, 저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날은 놀랍고도 축복된 하루였습니다. 여전히 힘든 순간은 있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저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계속 선택했

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제 편안함을 내려놓기 위해 케냐에 왔습니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왔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셋째 날, 아이들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불과 며칠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깊이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학생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을 감사드렸고, 앞으로 남은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열악했던 칼레에서 누린 더 큰 기쁨

킬리피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 우리는 칼레로 이동했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날 저녁, 이번에는 환경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킬리피에서는 약 300명의 어린이를 섬겼지만, 칼레에서는 약 4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킬리피에는 교실과 전기, 선풍기와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었지만, 칼레에는 그러한 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고, 전기도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가르치는 대신 뜨거운 햇볕 아래 야외에서 사역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솔직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도착했을 때, 모든 아이가 큰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환영은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늘도 아름답고 축복된 하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칼레에서는 게임 스테이션을 맡게 되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Noel



고 침대에 누워 그날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전날 밤에는 너무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지만, 실제로 그날은 너무나 기쁘고 축복된 하루였습니다. 오히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환경은 훨씬 더 열악했지만 저는 킬리피보다 칼레에서의 사역을 더욱 즐겁게 감당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뛰놀 때에는 너무나 즐거워서 더위조차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400명의 어린이와 전체 선교팀, 그리고 현지 리더들이 선풍기도 없는 공간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누린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불편함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통해 발견한 또 다른 어려움

칼레 사역을 마친 후 우리는 다시 킬리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청소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일이 어린이 사역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매우 수줍어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워지고 마음을 열도록 격려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들 역시 저만큼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날 역시 축복된 하루였습니다. 청소년들을 섬길 기회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마치며

케냐에서 섬길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조정석 / 남에스더 선교사

1. 자리를 찾아가는 기쁨의 집'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가도록
2. 보쉬교회 주일학교의 부흥과 음지음피아 교회 새신자들(특히 개종한 청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3. 탄자니아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고, 새로 그려나갈 사역의 비전 위에 성령님이 동행하시도록



아르메니아 백승환 / 올가 선교사

1. 소망의 집 프로젝트 3집을 수리 보수하는 일이 8월말까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2. 노후된 차량, 미니벤 교체에 필요한 재정이 은혜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3. 이란 정권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4. 이란 국경에 세워진 아가락 선교센터가 이란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방전도를 통해 더 많은 이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6. 아르메니아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이란과 터키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7. 현재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6유닛의 아르메니아 현지인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8. 예레반 인터네셔널 교회 (International Bible Church of Armenia, IBCA)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
9. 선교사의 가정과 특별히 노모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캄보디아 안진호 / 안지연 선교사

1. 뽀레끄러빠으 중앙 은혜교회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2. 세 가정 교회 리더들이 은혜충만하여 지혜롭게 이끌어 가도록
3. 신대원 졸업한 현지인 사역자 세이하 전도사 가정을 위하여
4. 순간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사역하도록
5. 고온다습으로 인해 지치지 않고 저희들이 영육간에 강건을 위하여

J국 최OO / 최OO 선교사

1. 9월에 아랍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지하교회 개척 세미나를 파리에서 합니다. 저희 가정이 대표선교사로 섬기는데 10가정 선교사님들 호텔숙박 재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지도록 손모아 주세요.
2. J국 야잔과 라비아 사역자와 함께 E국에서 수단 난민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가장 심령이 가난하고 상처받은 수단 난민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따스한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게 하소서.
3. J국 난민학교 비전의 집과 기도의 집 그리고 신학교를 위해 손모아 주세요. 외부의 감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4. 야O 선교사는 개종자라는 이유로 J국에서 결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에게 강건한 마음을 주시고 사도바울의 영성이 허락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선교현황

58개국 301명 (자체파송 79%) (2026년 6월 기준)

러시아 및 CIS

러시아 센 베제르부르크: 조경호(명숙), 노보시비르스크: 김경순, 이정식
 사할린: 김성웅(지수), 이르쿠츠크: 한성우, 타타르스탄: 주선민(손소미 아), 우술리스크: 장석희(악사나), 블라고베렌스크: 은성식(김경희),
아르메니아: 백승환(올가) **키르기즈스탄**: 강형민(숙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최00 선교사 겸임

동북 아시아

한국: 고은희, 김광문(이용숙), 김영진, 김에스터, 최광(나미연), 이정호(이은주), 정태호(정은주), 황영수(정경련)
중국: 김00(김00), 김00(김00), 이00(이00), 조00(윤00), 장00(김00)
대만: 이계석(연희), 김성수(이순희) **몽골**: 몽크(바야라)
일본: 공영환(은자), 이종하(정혜겸), 송좌한(김정희), 최대웅(권나현)

동남 아시아

베트남: 강00(범00), 이00(장00), 강00(한00)
태국: 김인기(박춘희), 김경수(서경란), 임진섭 (양윤희), 박경덕(신미선), 주진석(유경숙), 유옥임
라오스: 신00(00), 정00(김00), 천00(이00), 황00(전00), 제00(박00)
캄보디아: 김동규(이승향), 김광석(이영미), 김영대(조정아), 안진호(안지연), 손민지(이범신), 김길현(원경연), 박효순(이영희)
필리핀: 김인수(황소정), 성은식(김해경), 김적용(박영란), 박성용(미경),
미얀마: 한00(김00), 곽00(엄00), 김00(이00), 류00(킨000), 강00(이00), 김00(00), 전00(김00)

서남 아시아

인도: 강00(이00), 한00(손00), 남00(마00), 남00, 정00(전00), 김00(이00) **네팔**: 이00(00), 박00, 김00(오00), 오000, 김00
인도네시아: 기00, 김00(김00), 한지영(김성용), 김태환(주애니), 함춘환(김성혜) **파키스탄**: 정00(이00), 이00(장00)
파푸아뉴기니: 남영미(김운용) **방글라데시**: 곽00(김00), 강00(현00)

아프리카

케냐: 황광식(원지혜), 윤형로(미나) **남아공**: 이은원(최정미)
시에라리온: 김성림(배현란) **말라위**: 백영심 **모리타니아**: 박준용(한윤경)
탄자니아: 정부진(조재숙), 송규영(오호숙), 이병철(박미란), 정현우(정슬기), 조정석(남에스터), 오판석(정미라), 오종성(박영숙), 조병훈(허선옥)
모로코: 장원

중동

이스라엘: 김00(아00), 장00(최00), 이00(00), 최00(아00), 강00(R00), 김00(조00), 지00(유00), Chin00, 양00(00) **이라크**: 김00, 김00(00)
요르단: 고00(00), 최00(00) **이집트**: 김00, 김00(양00) **레바논**: 장00(서00), 김00(박00) **팔레스타인**: 정태훈(정소영) **중동**: 김000(00)

중남미&포어언어

아르헨티나: 유성두, 스텔라김 겸임 **칠레**: 스텔라김 겸임
쿠바: 안희진(구스타보), 전재덕(이재순) **파나마**: 김재한(그레이스)겸임
베네수엘라: 김도현(강미애), 김재한(그레이스) 겸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최용준(재숙) 겸임 **브라질**: 한인승(선희), 하선(남성만)겸임 **콜롬비아**: 박재현(정은실), 김도현(강미애) 겸임
멕시코: 이종식, 김봉년(김미란), 송두선(양정연), 임한곤(이길선), 이준성(석화) **파라과이**: 강성현(이경희), 김돈수(미정) **모잠비크**: 하선(남성만)겸임
페루: 최갑순(정미희), 박윤수(박병순)

유럽

독일: Vitali Gerner(Musa Galiew), 문성은(그레이스), Chris Schell(임영임) **프랑스**: 송석배(김은영), 송준호(정희진) **불가리아**: 박정일(인실)
튀르키예: 김00(00), 공00(박00), 최00(이00), 김00(00),전00, 이예레미야(권은혜) **우크라이나**: 김교역(주순) **그리스**: 신동덕(신미희)
보스니아: 신운영

북미주

미국: 양태철(현정), 강충원(정희), 박명숙, 구본철(구영숙), 최미영, 황인주(정미), 정화미, 김형주(민지), 권종승, 박태수, 김정환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몽골 TD 2기 (8/29-9/8)
 S/L: 한기홍 목사
 력터: 스카이 박 집사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중미 AFA 2기 (9/6-9/12)
 S/L: 송종호 목사
 력터: 이항복 장로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 캄보디아 인카운터 1기 (9/7-9/14)
 S/L: 설성훈 목사
 디렉터: 케빈김 집사
 문의: 로이김 집사 (213-999-1737)

- 네팔 QT 세미나 및 현장예배 (10/18-10/26)
 SL: 신영자 목사
 리더: 이미선 권사
 문의: 조범준 집사 (714-222-8628)

- 베네수엘라 AFA #12 (10/19-10/27)
 SL: 김도현 선교사
 력터: 안영숙 전도사
 문의: 562-665-0607

- 은혜동산 18기 (10/23-11/02)
 SL: 한기홍 목사
 력터: 윤만 장로
 문의: 이정호 집사 (213-500-7939)
 T/M: 9/10(목), 7PM, 웨딩채플

- 인도개척선교 모집 (10/25-11/4)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